朝鮮日報
夕刊 二十三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對西不干涉案交涉의推移
獨逸은오직나치스獨逸

一

西班牙動亂이 勃發된後에 世界人의 緊張한 注目을 集中한 點은 두가지다 첫재는 西班牙自體에잇서 左右어느派가 勝利하는가하는點을 世界的으로 二大系列의 陣營을이룬 파시즘과 社會主義의 鬪爭의 一端을 表示하는 歷史的事實로서 注目한 것이오, 둘재는 이西班牙의 左右兩派의 鬪爭은 必然的으로 歐洲에잇는 파시즘國家인 獨、伊와 人民戰線內閣인 佛國의 對立鬪爭에까지 發展치안흘까 하는 點이엇다 實際에 잇서 外電의 자조 報導하는바에 依하면 獨、伊 兩國은 軍事的으로 反亂軍을 若干 援助하고 佛國과 蘇聯은 政府軍을 援助하여오는것은 숨길수업는 事實이엿슴으로 이援助行爲의 相反한 方向이 無制限으로 展開될때에는 파시즘國家對社會主義的國家와의 全面的鬪爭은 不可避視케되엿든것이다 歐洲大戰의 危險信號의 警鐘이 亂打되는것도 無理가아니엿다。

二

이러한 形勢에 對應하야 파시스트國家 獨、伊兩國들에 끼인 人民戰線內閣 米配下의 佛國이 對西不干涉協約案을 英伊獨蘇四國에 提案한 苦衷은 足히 諒解할수가 잇다 勿論 獨伊兩國이 叛軍을 援助하는데 對抗하야 佛國이 政府軍을 援助하는 結果가 不可避인 世界大戰의 再演으로 導入할것을 念慮하는 人民戰線內閣의 政策은 너무나 常識的인 外交方針이라고 極左派는 非難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極左派가 政府軍을援助하자는 强硬論에지지안케 政府의消極的政策도 相當한含蓄이잇는듯하다 獨伊兩國의 叛軍에對한 援助를 封하는것은 西班牙動亂의 歐洲大戰化를防止하는同時에 오즉이것을 政府軍叛軍間의 맛씨름으로 마치게하는것은 時間的으로 動亂을 빨니終了케하는 效果가잇다고는認定할수가잇다 그러나 勿論 佛政府가積極的으로 政府軍을援助하는것을잘못하면 불똥을 이는것이못되고 적은불을큰불로 만들念慮가잇다는 打算的方針을 取하게된것은 佛國의戰略的立場에 歐洲의支持를 엇을수잇다 할지라도 地理的 其他關係에잇서 獨伊兩國과 鋒를겨눔은 危險하기에는 너머나 不利하기때문이라는것을 指摘할수가잇다。

三

佛國의 不干涉協約案에對하야 도버海峽을 隔하고잇는 英國이 現狀維持派의 大國으로서 贊意를表하고 蘇聯이또한 現狀維持政策에追隨하야 贊意를 表示한것은 이미오래다 파시스트國家中伊國도 叛軍도 國際法上의 交戰團體로 認定하야 中立管理하면 고만이라는 口實其他로 受諾을 躊躇하고잇섯든가 結局 去二十一日附로 武器禁輸는 勿論 義勇兵募集、義捐金募集等에 贊成이나 兵士義勇兵參加에 不可하다는 留保條件附로 參加하엿다。獨逸政府도 大體에따라 受諾하엿다。나머지

對中央戰에敗하면 朱毛共軍과合流
中央軍과는 끗까지最後一戰
廣西軍事會議決定

【廣東發電】廣州에 到着한 蔣介石氏는 廣西에 對하야 和戰兩樣의 準備를 整頓하고、貴州湖南兩省境으로부터 大軍으로써 廣西軍을 壓迫하는一方 說得使를 再三 李白兩氏處에 派遣하야 中央에 屈服勸告를 시키고잇는데 最近 廣州에들어온 情報에依하면 李宗仁氏는 좀 態度가緩和되어 이러케되어서는 武力抵抗을 하는것도 부질업시 地方을 騷亂하고 省民에게 苦痛을줄뿐이라고 安南經由 外遊하려는 意向을 가젓스나 이에反하야 白崇禧氏는 뭇까지 一戰하여야 한다고 十五日의 廣西首腦部會議에서(李濟琛、李品仙、劉廣隱等 諸氏도 出席)愼重協議한 結果 如左한 最後決定을하엿다

一、李宗仁氏를 軍事委員會常務委員、白崇禧를 浙江省政府主席에 任命한 中央의 新任命은 뭇까지 拒否할것

二、뭇까지 中央軍과 一戰할것

三、萬若 이一戰에 敗退하면 雲南으로부터 四川에들어가 朱毛共產軍과 合流하야 中央軍과싸울것 (寫眞은 李白兩氏)

北中武官會議第二日

【天津二十二日發同盟】北中武官會議第二日 午後二時 駐屯軍司令官官邸에서 開催하고 影佐中佐로부터 北中問題에 關한 中央部의 意向을 傳達하고 이에 關하야 駐屯軍幕僚 各地武官은 現地를 中心으로 徹底的檢討를 加한結果 中央部、現地兩者의 意見이 完全히 一致되엇다 會議結果를 綜觀하건대

一、民衆의 福祉增進을 眼目으로 이에 適應하는 모든 工作을 施할것

二、最近 蔣介石氏가 北中實力者에對하야 壓迫을 加하고잇는데 이點에 關해서는 嚴重監視하야 北中을 明朗化케할것 그리고 蔣介石勢力의 北中介入을 絕對拒絕할것

三、宋哲元氏에게 日本과 協力할 意思가잇는限 이를 援助할것 第二十九軍의 現狀援助할것

日事件에 關해서는 徹底的取締를 實行케하고 區區한 小事件은 不問에 附하고 大局的見地에서 善處할것

四、關稅引下는 絕對로 必要하다 川越、蔣交涉에는 側面으로부터 積極的으로 援助할것

五、日中經濟提携는 至急을 要하므로 冀察政權을 鞭撻하야 日本勢力進出을 勝進하고 產業交通改善을 促進할이 必要하다

는데 意見이 一致되어 右根本方針에 基하야 中央、現地는 密接한 連絡을 取하야 邁進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田代軍司令官은 二十三日、西日川越大使와 再會見하야 武官會議의 結果를 報告하고 最後的 協議를行하기로되엇다

匈、不干涉案受諾 獨逸도結局承認?
유고슬라비아도參加用意를表明
不干涉協約案의動向

【부다페스트二十二日發同盟】匈牙利外相칸야氏는 二十二日午前 부다페스트駐剳佛國公使를 外務省에 招致하고 西班牙內亂不干涉協約案을 原則的으로 受諾하겟다는 旨를 通達하엿다

【벨그라드二十二日發同盟】유고슬라비아外相스토야디노비치博士는 二十二日午後 벨그라드駐剳佛國公使당피에ㅡ르候를 外務省에 招致하고 西班牙內亂不干涉協約案에 參加할 用意가잇다는旨를 表明하고 武器彈藥其他軍需品의 西班牙向輸出을 禁止한다는 旨를 回答하엿다

【伯林二十二日發同盟】西班牙內亂不干涉協約案에對하야 獨逸政府는 아직諾否를 正式으로 表明치 안흐나 當地外交筋에서는 獨逸政府도 結局 伊太利政府同樣으로 承諾할것이라고보고잇다

가달베地方에서 兩軍激戰

【세빌리아二十二日發同盟】叛軍報道에 依하면 마드리드、세빌리아中間에잇는 가달베에서는 目下叛軍과 政府軍間에 激戰이 展開되엇다고한다 政府軍은 다이나마이트로 道路橋梁을 破壞하고 頑强히 死守中이라고한다

獨紙의反蘇筆陣 又復蘇聯을攻擊
발틱海軍備擴充을暴露

【伯林二十二日發同盟】二十一日來 伯林諸新聞은 一齊히 蘇聯邦의 西部國境의 軍備擴充을 報道하야 蘇聯邦攻擊의 筆陣을 펴고 잇는데 二十二日의 各新聞은 다시 大大的으로 蘇聯邦의 地中海進出을 報道하야 如左히 論하엿다

一、蘇聯海軍은 발틱海上에 約四十隻의 潛水艦을 集中하얏다

二、蘇聯邦當局은 발틱海의 要港 크론스타트附近에 飛行機의 常駐所를 新設하엿다

三、蘇聯當局은 全國에 亘하야 造船所建設을 急行中이다

宣傳省을新設코 新任外交官派遣
西政府緊急閣議決定

【마드리드二十二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二十二日 緊急閣議를 開하고 現在의 情勢에 鑑하야 海外에의 宣傳의 必要를 痛感하고 宣傳省을 新設하기로 決定하엿다 또 이와 倂行的으로 國內의 라디오放送、新聞、映畫에 關해서도 全國的으로 이를 指導統制할 件을 決定하엿다

【마드리드廿二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遣外使臣中 反政府色彩가 濃厚한 外交官의 更迭을 行하엿는데 二十二日 急遽 新任外交官을 派遣할 方針이란 旨를 發表하엿다

反獨라디오에對해 蘇聯當局否定

【莫斯科二十二日發同盟】莫斯科駐剳獨大使폰데어슐렌부르그氏는 二十一日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을訪問한結果 依然 西班牙의 蘇聯邦援助에依한 反獨라디오에對한 ...

키로프暗殺事件 被告十六名에銃殺求刑

【莫斯科廿二日發同盟】지노비에프、카메네프、에프도키모프、무라체프스키、로가에프等 十六名의 暗殺事件에 關한 公判은 二十二日 聯邦大審院軍事部에서 續行하야 檢事비신스키氏는 右十六名에 對하야 銃殺求刑을 行하엿다

톰스키氏自決

【莫斯科二十二日發同盟】全蘇共產黨 中央委員會는 二十二日 톰스키로써 中央委員候補 하일무니 지노비에프派의 테로事件에 關係한 事實이 暴露되어 自責의念에몰려 드디어二十二日 自決하얏다는旨를 發表하엿다

米聯合艦隊 根據地에歸還

【산·페드로二十二日發同盟】六週間에亘한 布哇알라스카 方面의 夏季大演習을終한 米國聯合艦隊戰鬪艦七隻 輕巡艦十隻 潛水艦六隻은 二十二日 산·페드로·산디에고의 各根據地에 歸還하얏다 各艦乘組員二萬은 南部加州에서의 秋冬季大演習을 할터이다

佛機廿六臺 西首都近郊에着陸

【리스본二十一日發同盟】佛國機 二十六臺는 十日마드리드近郊바라스 飛行場에 到着하엿다 一台는 飛行士 十二名씩을 搭乘한 旅客機로 他의二十五台와 함께到着한後 即時機體에 西班牙國旗를 다러다 乘組員은 全部佛國人으로 各機는모다 機關銃六台를 裝備하엿다한다

世界週報

西班牙의內紛

西班牙의 叛亂騷動은 한동안叛軍의 勝利를 傳하든니 今週에드러서는 戰局狀態를 뭇하야 一進一退 戰局은 何等進步를 보지못하고잇다 그러나 한동안 政府軍의 不利를 傳하든 산세바스찬市의 防備는 其後 叛軍의 到着으로 漸次 活況을띄게되며 叛軍에 對하야 猛烈한 反擊을加하고잇스며 그리고 中部戰線에서도 叛軍掃蕩 ... 는政府軍에게 占領되어 漸次 政府軍에게 有利하게 展開되는 感을 주고 잇다

伊不干涉案受諾

獨伊兩國의 叛軍支援과 佛蘇의 政府軍支援으로 西班牙의 叛亂騷動은 바야흐로 國際政局에 異常한 波紋을 그리게 되자 佛國政府는 率先하야 所謂不干涉協約案을 關係各國에 提出하고 贊意를 求하고잇든바 伊國은 參加國의 間接的援助도 禁止할것이라는 條件附로 右不干涉案에 參加하게되엿다

佛波軍協定說

佛國參謀總長 가므랑將軍의 ... 小協商國으로 佛國、波蘭、루마니아三國에 作戰協定이 成立되리라는說이 傳한다 그리고 루마니아參謀總長 상소노비치氏도 와르소우를 訪問하게되엿는데 이것으로 三國의 關係는 益益接近되게되엿다 如何間 獨軍의 라인進駐以來 나치스獨逸의 包圍陣은 一層强化되게되엿다

廣西包圍陣强化

蔣介石氏의 中央對廣西關係는 依然緊張되여 武力衝突까지 念慮되게되엿다 即蔣氏는 湖南軍과 廣東軍을 廣西省境으로 集結하는一方 廣西에 對하야 內紛工作에도 努力을 쓰고잇다 그리고 이와竝行하야 軍需品의 廣西로의 移出을 封鎖하게되엿슴으로 廣西는 經濟的으로 事實上 中央軍에게 包圍되게되엿다

太平洋會議開會

太平洋沿岸諸國의 友誼增進을 目標로 每年 一次式 開催되는 汎太平洋會議는 지난 十六日 米國요세미테에서 開催되엿다 今回의 會議는 北中問題를 中心으로 日中關係가 微妙하고 緊張함을 中心으로 日本商品의 急激한 進出로 國際市場에 커다란 波紋을 그리고 잇는此際인 만큼 各國代表의 熱辯은 異常한 緊張味를 띄고잇다

伊太利回答寫本 英政府에手交

【倫敦二十二日發同盟】倫敦駐剳伊太利代理大使 캅폰氏는 二十二日 英外務省을 訪問하고 佛政府의 提案인 西班牙內亂不干涉協約案에 對하야 廿一日 伊太利政府로부터 正式受諾의 回答을 報告하고 右回答寫本을 手交하엿다 同時에 右回答에 對한 伊太利政府의 見解를 披瀝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佛國政府의 回答에 對하야 伊太利政府의 留保條件의 하나인 民間義勇兵의 內亂參加를 禁止할 手段을 講究하고 義捐金募集送附에 關해서는 佛國政府의 希望대로 伊太利政府는 이를 禁止할것이다 그러나 아직 最後의 確乎한 方法은 決定되지 아니하엿다

人事·集會

▲金秉濂氏(京畿道會議員)京城府會議員出馬人事次廿二日午前本社來訪

日曜氣配

◇期米 公定高值에依한 買受申請의 二十一日까지의 累計는 八七萬七八六七石二斗에 達하야(前年은겨우一萬餘石)此際에 古米拂下要望聲이 노파 委員會待望에 要方見送하야 多少頭重

◇株式 國策과 豫算待望이나 穩健한底政一新을 豫想코 選擇買氣가强하다 氣配小硬 大新 一六六、五〇 新東 一三三、二〇 鐘新 一五九、八〇 日產 九六、二〇 大阪天候晴 釜山大邱小雨 群山木浦平壤曇

八面鋒

◇어느듯 處暑이자七夕 더위도 이만하면다간셈。

◇더위는 가니 시원치만 豐凶이 의지못하니 年事가 可慮

◇無條 豫想보다는 느는것이지만 아즉狀態로는 今年 收穫은 減少될것이 確實。

◇豐年이나 지고 穀價나 올라야 살동말동한데 凶年에 穀價高면 살길이 罔罔。

◇살길은 將來의 問題 方今水災에 허덕이는 數十萬災民은 朝夕으로 서늘한 오늘에 입을옷이 업고 먹을糧食이 업다。

◇周任新 家屋、流失된 農土니 復舊를 생각하면 오즉 前途가 아득할뿐。

◇各自 分에 應하야 災民을 救하자。

今日本紙四面

白頭山探險記

各界人士網羅한 朝鮮初有의壯擧 ②

徐椿

地球 생긴 以來 幾億萬年을 두고 사람의 발자취를 拒絕해 오다싶히 한 高山深林、山의入口로부터 出口까지 全途程五百里길에 증생으로는 猛獸라는 輩이 잇고、사람으로는 山客이라는 容易치아니한 輩이 잇는것으로 世間에 알리워진 白頭山、一年四時의 區別이 업시 頂上에는 白雪이 늘 차이어 잇는것으로 알리워진 白頭山、天候마저 容易치 아니하야 一旦 濃霧大雨에 싸이는 날이면 바로 咫尺아플 겨려가든 사람과 길을 달리하야 三四日씩을 迷路에 彷徨하는 例도 업지 안다는 白頭山을 向하야 探險의 壯志를 이르킨 團員諸君도 또한 凡常한 사람들과는 칠신 그 類를 달리하는 사람들이다。이 一言은 余의 筆에 特書할 要素를 가지는 一點이다。

危險한 곳이지라、가는것은 冒險이요、冒險인지라、이 冒險에 參加하는것은 即、生死를 바치는 高貴한 行爲가 되는것이다。

團員一行三十二人中에는 或은 動植物及 地質學者의例에서 보는바와가티 自家專門의 學問을 爲하야 死를 賭한 이도 잇섯고、或은 同行한醫師兩君의 例에서 보는바와가티 醫는 仁術也의 天職을 爲하야 死를 賭한 이도 잇섯다。또 團員三十三名의 警備의 任에 當한 咸北警備隊二十名은 그의 職務를 盡하기爲하야 賭死行爲를 行한것이다。

白頭山 探險의 計劃에 參加한 諸君의 行爲는 賭死行爲에 屬하는것인지라。諸君中에는 그 壯志를 이르키기까지에 만흔 躊躇를 한이도 잇섯슬것이오、또는그의 父母妻子 親戚知己로부터 制止의 懇曲한 勸告를 바든 이도 만헛슬것이다。

노피 九千餘尺에 不過한 白頭山에 有史以來幾千年에사람의 발자취가 좀처럼 다아보지 못한것도 事實이즉 이때문이엇다。

이러한 險難한곳을 向하야 父母妻子 親戚知己의 制止를 不顧하고 探査의 壯志를 이르킨 團員諸君을 指稱하야 凡常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것은 조금도 誇張한 말이 아닌同時에 白頭山探險의 前驗者들과 한가지로 그이름을 靑史의 一頁에 남길 사람들이엿슴을 나는 疑心치아니하는바이다。

歷史의 記錄에 依하면 距今二百二十五年前(西曆一七一一年)에 淸國人에 依하야 頂上踏破가 開始되고、

그翌年인 康熙五十一年에 朝鮮淸國兩國으로부터 各各使節을 派遣하야 兩國使節이 頂上未及約十五里의 地點에 定界碑를 立하야 兩國의 境界를 定하엿고、

그後 五十五年을 經過한 西曆一七六六年(乾隆三十一年)에는 朝鮮人徐命膺、趙曮等이 惠山鎭으로부터 登하야 六月十四日에 山頂에 達하엿고、

西曆一八八三年에는 朝鮮人金禹軾等이 官命에 依하야 翌五月十五日 同六月十八日의 二回에 亘하야 茂山으로부터 登하엿고、

西曆一八八六年에는 英國人登山家영·하즈반드氏、陸軍中尉제임스氏等이 松花江으로부터 續行登山하엿고、

西曆一九〇二年에는 露人야ㅡ벨트氏一行이 茂山으로부터 登山하야 科學探査를 遂行하고 天池를 撮影하엿다。

大正十五年에는 朝鮮敎育會主催로 相當한 人數의 登山探査가 잇섯고、

그外 最近에와서는 茂山第三守備隊와 惠山鎭第四守備隊와가 連絡演習行軍의 目的으로 白頭山登山을行한 例가 잇다。

近來에 朝鮮사람으로 白頭山登山을 行한者는 다 兩地守備隊의 特異登山의 機會를 다서 此에 隨行한 者들이엇다。

그러나 純然한 朝鮮사람만으로 團員을 朝鮮사람의 힘으로 組織하야 萬年秘藏의 白頭의 姿態를 暴露시키자는 計劃은 今番 우리朝鮮日報社의 白頭山探險團募集이 그 嚆矢를 지은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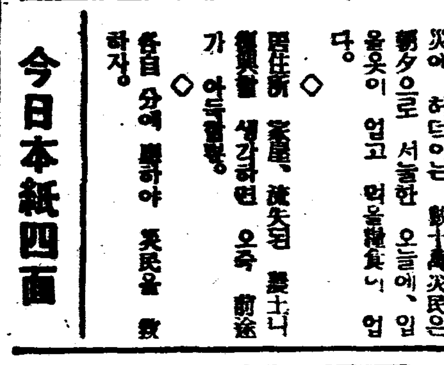
여기 今番探險團一行三十四名의 氏名、年齡、職業을 列記하면 如左하다。

白頭山探險團員名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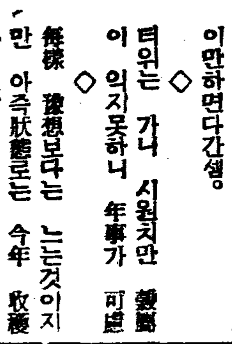
氏名 年齡	職業
本部	
徐椿(四三)	朝鮮日報社主筆
李相昊(三四)	同 社會部長
方在鳳(三六)	同 社員
李鍾玉(二七)	同 寫眞班
李明雨(三〇)	同 活動寫眞技師
崔雲峰(二五)	同 助手
第一班	
申聖雨(三五)	醫學博士
申龍均(三五)	醫專助敎授
明東(四八)	
李鍾祚(三五)	日新女高敎員
朴容徵(二三)	養正高普生
鄭在鎔(四九)	
第二班	
金度禎(四三)	
金良洙(四一)	
崔淳周(三七)	延專敎授
姜在鎬(三七)	普成高普敎員
鄭命壽(三三)	
金成九(四〇)	
第三班	
金秉河(三二)	動物學者
司空桓(四〇)	中東學校敎員
張亨斗(三一)	植物學會幹事
劉駿默(二六)	明大學生
鄭洙英(二三)	音樂學院學生
柳漣永(二八)	好壽敦女高植物先生
第四班	
金世鎔(三三)	中央體育研究所
金相恒(三六)	
裵榮鍵(三三)	萬力產業會社
張命昌(三三)	共榮商會
金鶴圖(二三)	早大學生
劉洪烈(二六)	城大研究生
第五班	
姜夏馨(四〇)	太華書館
姜殷馨(三七)	大成書林
姜鶴馨(二七)	
鄭士永(二四)	醫專學生

團長徐椿以下 崔雲峰에 至하는 六氏는 朝鮮日報社를 代表하야 探險團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기爲한 本社派遣員이다。

最初의 計畫은 募集團員을 二十名으로 制限햇든것인데 各界人士의 熱狂的參加에 依하야 志願者三十餘名을 떨어버리고도 二十名이 二十四名이되고、다시 二十八名이 되여 結局은 本部人員을 合하야 三十四名의 多數가 一團이 되여 朝鮮日報社主催白頭山探險團을 構成하게 된것이엇다 (寫眞은 出發直前의 白頭山探險團員)(續)


精工舍製クロム懷中
品質十ケ年絕對保證品
中分處大品庫在
クロム11型腕時計 瑞西製
(1) 7石市價7圓ノ品 特價 2.60
(2) 7石 〃 10圓ノ品 …… 3.70
(3) 7石 〃 13圓ノ品 …… 5.00
ウオルサム16型懷中 米國製
イ 7石市價25圓ノ品特價 7.50
ロ 7石 〃 33圓ノ品 …… 9.00
◀오시하구청를구로다가▶
前金の事 送料不要代引は40錢
天賞堂 東京銀座尾張町22 振替東京66857

朝報案內
社員招聘
社員 數名(固定給有)
班長 若干名(定給外에手當有)
右急募하니 本人이履歷書持參來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大同生命 京城支部 募集部長


流行歌
新寫眞 金仁淑吹込
울어라푸른하늘
荒野에해가점으러
姜弘植・金楚雲
콜럼비아레코ㅡ드

最新腹痛鎭靜劑
腹痛타민
여름腹痛에注意
醫學博士大谷文昭氏創製
大阪北濱 天野書堂株式會社

色白
色이검은분、주근깨、부룸、여드름、紅顏、기미 …
和歌山市新內通一 湯崎院研究所

◆辭典十冊 合本タ》の一圓 分冊は各五十錢
殘本處分大投賣斷行

法律百科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文章百科大辭典 五分間演說辭典 社交常識辭典
特別景品 模範日記 無代進呈
現代出版社

東洋劇場
靑春座公演第八週 八月二十三日부터 晝午後一時半부터 夜午後七時半부터
萬歲 마라손王孫基禎君 三幕
悲劇 母性愛 어머니 李雲芳 作
悲劇 사랑에속고돈에울고 後篇 林仙奎 作 二幕
悲劇 三女子의길 崔獨鵑 作 四幕六場

朝鮮日報社 釜山支局 長電話釜山二八九七番

天下一品！一家一瓶！
ライトインキ

本舖 篠崎インキ製造株式會社

忠南道農作物被害 二百四十餘萬圓

乙丑年의大洪水보담도尤甚

交通恢復으로判明된眞相

【大田】충남전도의 수해로 엽은피해상황은 지난십구일현재로 보도한바잇섯거니와 그동안교통이 아직완전이개통되지못한 산간벽지의 상세한 피해는 조사하지못하야 알길이업섯든바 어제교통이 완전이개통된 이십일일 현재의피해액으로보건대 십구일판명되것보다 놀낼만치크다 한다 인명의사상과 행방불명자가 이십구명의 다수에달하고 가옥의류실과 도궤가 오백이십팔동이며 전답이 류실매몰되고침수되야 입은피해가 일만오천이백사정보에 피해액이 일백팔십만 삼천팔백원이 사실이고 교량(橋梁) 도로 하천등의 류실로서 입은 피해가 오십팔만오천륙백칠십원에 달한다

금번의 인명사상과 농작물피해는 실로 을축년대홍수때보다 훨신 심하다는바 속히복구하여야할 교량도로의 피해액중 충남도에서는 지난 이십이일 총독부당국에 구만원의 국고보조비를 요구하얏다 각군별로 농작물피해상황을 보건대

大德	九一六町五	(四一、二五七圓)
燕岐	一、九七〇町四	(一七六、三六〇圓)
公州	三、九九二町三	(三三〇、八〇〇圓)
論山	一、三〇八町五	(一〇四、五三八圓)
扶餘	[illegible]	([illegible]圓)
靑陽	一、四七八町七	(一八八、三三〇圓)
洪城	五五五町一	(三一、五一一圓)
禮山	六六九町六	(三〇、八三〇圓)
牙山	四四町	(三、三六八圓)
天安	三八町三	(三〇、三三〇圓)

純情에서울어나는 少年少女의同情

災地어린이에게金品을寄附

鄭少女의特志

【江西】남조선지방에 홍수로말미암아 모든가산과 또는처자를 일코 헤매이며 어린아이들은부모를일코 엇지할바를 몰라서울고잇다는것을 신문지상을 통하야알게된 강서읍내(江西邑內)정수협(鄭秀浹)가정에서는 이비참한것을 어린아이들이 잇는데서 이런말을 하게되엿다 이말을들은 정수협씨의 둘째딸 인도와 동옥소녀(鄭秀浹次女仁道、東玉少女)의 형제는 제각각 자긔를 건올가지고 본보강서지국을 차저와서 인도소녀는 자긔의벙어리궤한개를 가지고오고 동옥소녀는 의복한벌을 가지고와서 물건밧는대로 물과싸운 사람들에게보내달라하며 내여 노흐며 이돈이 비록 적으나 아버지께서 주시든 사탕갑을 모와두엇든 돈인데 지금 나와가튼 어린아이들에게 전하여달라하엿고 아우 동옥이도 역시 이의복은 내것인데 나와가튼 동무에게 전하여달라고 하엿다 본보 강서지국에서는 그어린아이들의 순정에서 울어나는 동정에 감격하야 『벙어리궤』를 열고 보니 돈은 사십칠전이 들어잇섯다 그래서 지국에서는 즉시로 본사로 전달하엿다 (사진은 鄭仁道(八)少女와 東玉(六)少女의 姉妹)

金少年의赤誠

【光州】금번 삼남수해로 인하야 불상한 사람들이 만히 죽고 또는 살고잇스면서도 먹을것을 못먹고 죽을지경에 잇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하야 부모님의 말을 듯고 어린아이의 순진한 동정심이 발동되야 이십일일 오전열시경에 푼푼히 모흔 벙어리궤를 가지고 본보광주지국에 차저와 리재민에게 전달하여달라 부탁하엿는바 그 소년은 동아부인상회광주지점 김희찬(金熙燦)씨장남 충기(忠基)(九)군으로 광주제일보통학교 입학년에 재학중이라는데 벙어리궤를 깨트려보니 현금일원오십이전이 드러잇섯다 (사진은 김충기소년)

三淸町民의 水害救濟品募集光景

水害救濟金募集을 江西署、突然禁止

警察部에서아직不許可라고

【江西】남부조선과 중부조선을 망나하야 대홍수로 말미암아 당장에생명이 목전에달렷고 따라서 먹을것 입을것이업서서 고민한다함은 각신문지상을통하야 삼척의동자라도 잘알게되엿다 그러고 금번에 조선총독부사회과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주체가되여 남조선수해구제의 연금모집(朝鮮社會事業協會主催南朝鮮水害救濟義捐金募集)이라는 긔사를보고따라서본보 강서지국에서도 구제금모집에 국원일동이 총동원하야 모집에 착수하엿든데 돌연 강서경찰서 고등계에서는 구제금모집을 중지하는 동시에 아직 구제금모집에 인가가 아니되엿다는 경찰부에서의 통지가 왓스니 당분간 기대리여서 모집하라하야 강서지국에서는 구제금모집을 중지하는수밧게 업게되엿다한다

水亂의騷動에 出生한두生命

두쌍母子모다健全

【三浪津에서 嚴特派員發】구호중재지긔문의 한조각! 삼랑진(三浪津)일대의 삼천주민의 가산을 만경에 둘어마신락동강(洛東江)수가 각각으로 그위엄을떨치해오든중에 오죽피란의 유일한생명선인 금세독(錦世堤防)의피란민중두어머니가 옥가튼 아들을 나흐니 하나는 금세리(錦世里)팔백팔번지 리춘태(李春泰)의 안해김씨(三一)이요 하나는동리팔백륙번지 송선오(宋善五)의 안해리씨(二〇)인바 이두생명은 그러한수란중에서 가진고초를 겪고 새생명의첫 소리를칫슴에또 그성장은날을따라 완성해가니 이아니과적이랴! 그러나 산후의 허약에다 먹을것을 엇지못하고 귀진맥진해누엇든 이두어머니는 약소하나마 우리구호반의 백미와 약품분배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모양은 보는자로하여곰 눈물을 흘리게하엿다

本報支局後援으로 水害救濟映畵會

新義州新鮮座에서

【新義州】조선연극의 유일한극장인 부내 매지정(梅枝町) 신선좌(新鮮座)에서는 삼남(三南)령서(嶺西)지방의 수해구제영화대회(水害救濟映畵大會)를 오는 이십오일부터 삼일간 본보신의주지국후원으로 개최하야 실비를 제하고남은 의금은 전부수해리재민에게 구제하리라는데상연할영화의프로는 다음과갓다한다

一、英雄歡迎 一、赤貨베쓰 一、消防隊

金品寄託遝至

【江西】갑술년이후에 처음보는 홍수로 삼남수해 이재민의 절박한사정은 본보긔사를 통하야 잘알엇스나 강서지방에서는 지할바를 몰으고 잇든중에 이십일아침에 본보강서지국에서 남수해구제금품 모집이라는 시판이 붓자 동포애가만흔 사회로부터 성의를 다하야 금품또는 의류를 본지국에 의탁하는 인사가 만허서 복국원도 그에감격하야 대대덕으로 모집에 착수하엿다 당일현재로 의탁한 금품과의류는여좌하다하며 금품만은 본사로즉시송부하엿다한다

寄附者의氏名

朴昇洛一圓 金丙昨一圓 金明洙六十錢 高聖德五十錢 鄭秀浹五十錢 富田商店五十錢 高益柱五十錢 李斗京二十錢 李相一二十錢 大永社二十錢 明載夏二十錢 金一浩十錢 金桂邊二十錢 康日權二十錢 安炳祿二十錢 明爵益二十錢 朴輪洙十錢 洪義謙十錢 李相根十錢 德鳳洙十錢 朴宗洽十錢 宋益三十錢 (以下[illegible]) 析眞代九十五錢(除) 羅在貞衣類二點 方恭厥衣類一點 金俊善衣類一點

水害地全州一帶에 暴雨또다시繼續

全州川邊의 土幕과天幕속에 接居中인 數萬罹災民人心恟恟

【全州支局發電話】전주지방에는 이십이일 오후한시부터 또비가내리기시작하야 이십삼일 오후한시에도 비가만히퍼붓고잇는때 천막에서 지내는다수리재민 전주천(全州川)변일대에 사는빈민들은 이번비에 다시수해나 나지안홀가 념려하야 인심은 흉흉한중이며 당국에서도 먼젓번 수해의 경험도잇서서 방금부터 대책을 강구하면서경계중이라한다

그리고 비는 아프로도 며칠계속할모양이라하야 전북지방의수만리재민은 매우념려하고 잇다

本社에感謝電 水害地로부터

이번수해지의 리재민을 위하야 본사에서는 지상에 보도를신속히하엿고 또구호반을직접 수해지에파견시켜서 구호하는중인데 각지에서 본사사장에게 다음과가튼 감사의전보가 도착하엿다

◆친절한위문과 민속한구제를 감사함 강원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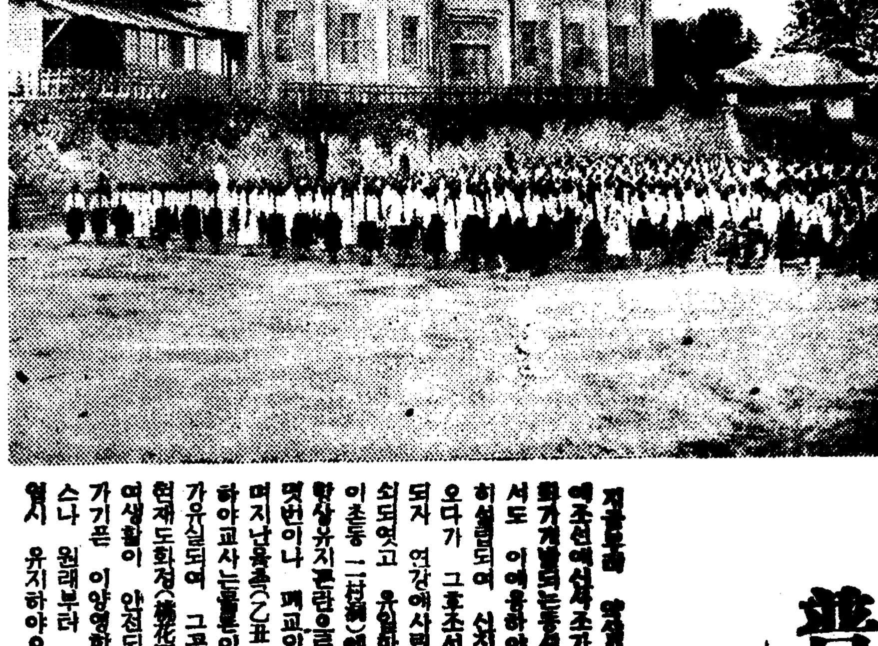
◆귀사의 신속한보도와 철저한 구제를감사함 김해읍 마마리 리재민일동

◆귀하수해리재민에게대한 일분을감사함 정해군수

冷泉町에小火

이십삼일 오전열시이십분쯤 시내 랭천정(冷泉町)팔십칠번지리원규(李元圭)의 집에서 불이나서 때마츰 맹렬히 불어오는남동풍에 일시는 상당히 혼잡하엿스나 소방대원과 동리청년들의 진력으로 약 이십분후에 진화하엿다 원인은 굴뚝의 불이한천으로 그가리되것이며 손해는 약삼십원가량이며 인축의 사상은업다

昇格된養英學校



二村洞養英學校 普通學校로昇格

지난十五日附로正式認可

京西에唯一한初等敎育機關

지금부터 약이십팔년전무신(戊申)년에 조선에서새조가드러오고모든문화가개발되는동시에 한강연안에서도 이에응하야 교육긔관도만히설립되여 신지식을보급교양하야 오다가 그후조선에교육령이실시되자 연강에사립학교는 전부폐쇄되엿고 유일한이양영학교만은 이촌동(二村洞)에 존속되엿스나 항상유지곤란으로 풍전등화가티 몃번이나 폐교의비운에 빠저가며 지난을축(乙丑)년대홍수로 인하야교사는물론이며 이촌동이전부가유실되여 그곳주민들은전부가 현재도화정(桃花町)으로 이전되여 생활이 안전되엿슴으로 력사가기픈 이양영학교도 이전되엿스나 원래부터 경제의 긔초가 업시 유지하야오는관게상 설립자김태숙(金泰淑)홍영근(洪英根)량씨의 만흔노력과 일반주민의물질적로력으로 아동이백여명을 사변제로 교수하야오든중 작년 십일월에 마포유지리윤구(李允九)씨가인수하야 경영하야오다가 그해십이월십사일 불행하게작고한후 그의영식되는 리필훈(李弼薰)씨가 인수하야 현교사를일만칠천원에 매수하야 금번신학

[illegible] 목하연으로 현재생백여명의 아동을수용할 [illegible] 공립학교에 수용키어려운 이형편임으로 [illegible] 저 저간보통학교에 [illegible] 키든 초대교장으로 다년종에서 업에 만흔공헌이 계신 리원재(李源梓)씨를 초빙하야 제반준비에 분망중에 지난십오일부로 사립양영보통학교(養英普通學校)로승격인가가되여 오는 구월일일부터 개교하리라하며 재단도불원에실현되리라하니 연강에 유일한력사를가진 동교의 금후발전과 설립자리씨의열성은 경서신 오만주민들은 연간 치하하지안는다한다

〃다다미〃미테둔 千餘圓紛失

孝子町米穀商이

부내 효자정(孝子町)이십삼번지에서 쌀장사를하는 김영환(金永煥)은 그집전방 『다다미』미테 너허두엇든 돈일천팔십원을 이십일밤에 어떤사람이 끄내갓다고하야 얼골비츨 변해가지고 이십삼일아츰 소관종로경찰서로 동지하여 왓슴으로 이서에서는 곳형사대를 현장에 출동시히여 실지조사를 식히는한편 그집사람들을 불러다가 취조중인데 돈을두엇든장소가 장소인만큼 돈둔내용을 잘아는사람의 소위가 아닌가하야 그방면을 엄중조사중이라한다

電車오로빠이衝突

이십이일 오후 열시삼십분쯤에 한강통(漢江通)삼번지 아페서 영정(榮町)오시후번지에 사 [illegible]

天氣予報

槪況 七五四粍의低氣壓은上海附近에 七五八粍의 低氣壓은 滿洲方面에잇다 高氣壓은 千島方面으로부터日本海를 거처서 朝鮮半島의東海岸에 떠지고잇다 그리하야 滿洲는晴、北朝鮮은 曇 其他곳곳에서는 小雨가잇다 그리고 日本內地에는 흐린곳이만타

豫報 오늘밤에는 흐리고小雨가잇슬뜻 明日에도 흐린模樣이다

昨日最高 二七度四
同最低 一八度九
今朝最低 一八度七
正午溫度 二三度五

各地에降雨

仁川觀測所發表

【仁川】요사이 일긔가 넘우서늘하야 곡식의피해가 적지안흠으로 농가에서는 매우우려중인데 이십삼일아침에 인천관측소의발표에의하면 중부이남은의연강우를게속하야 이십삼일오전열시현재의 강우량은 다음과갓다

◆江陵三十미리 ◆大邱三五미리 ◆鎭川五三미리 ◆淸州五三미리

이상의지방은 아직도 강우가게속중임으로 긔온은 예년보다 도내지이도가낫다하며 명일부터는 일과가 차차회복 될이라한다 그리고 이백십일을 압두고 남양해상에 잇는 태풍은 동경(東經)일백삼십칠도 북위(北緯)십칠도를 중심으로 칠백사십륙『미리』의 세력을 보이고잇는데 상세는 아직알수업스나 북서로진행중이라고한다

勝利는職工에게 要求條件을全部貫徹

廿一日午后부터一齊히就業

大田郡是製絲職工罷業續報

【大田】루보=대전군시제사공장(大田郡是製絲工場)의 칠백직공동맹파업은 이미 사일이경과하고 제오일을 맛게되얏스나도로 해결의비처 보이지아니하고 점점문제가 확대하게되야지 난이십일에는 교부 림효순(林孝順)을 비롯하야 여공 구룡녀(具龍女)등 십칠명을 경찰이검거하야 취조중이라 함은 과보한바이어니와 여공들은 그후에 로태도를 변하지아니하고 강경하게나아가게되야 공장측에서는 하는수업시 지난이십일일 오후한시에 직공전부를 모아 놋코 『요구조건을 전부 들어줄터이니 일들하라고』 언명하얏다고 한다 사오일동안 잠을 자지아니하고 밥을 굶머가며 그들의요구조건을 기여히 관철하라고 싸우든 직공들은 맛츰내 목적을 달하고 이십일일 오후세시부터 일제히직장으로 나아가취업하얏다한다

그리고 피검된 녀공들은 경찰서에서 취조하야본후에처결하리라고하야 그의장래는 일반의 주목을 끄을고잇다고하며 공장측에서는 희생자를내지안흘방침이라고하야 금번문제는원만해결되얏다고한다

社會에未安千萬 要求는善處 棟田庶務主任談

문제가너무오래동안 끄을게되야 일반사회에 미안합니다 문제는 이제전부해결되얏소이다 문제의 삼기(杉崎)김(金)조(趙)삼씨는아직완전히해고시킨것은 아니오나 본사와타협한후 본사로 전근시키든지 그러치안흐면 해고를시키든지 하겟습니다 그들의잘잘못을불고하고 하여간 문제의장본인이니까요 그리고 직공들은 한사람도 희생자를 내이지안흘방침입니다

一日兩處工事場에 三名의死傷發生

두곳모다山崩으로

【咸興】한날에두공사장에서 두건의 로동자사상사고─지난이십일일오후다섯시반쯤 함흥부산수정(山手町)부영수리지 공사장에서 토사(土砂)를 운반하든도로 로동자 리호천(李鎬天)과 김상봉(金相鳳)의 두명은 산에올나가다가 돌연 사방한편이 무너저 리호천(李鎬天)은 즉사하고 김상봉(金相鳳)은 중상을 당하얏다

×

동일오후세시쯤에 함주군주북면 향흥리채석장(採石場)에서 자갈(砂利)을 깨고잇든 동면 김씨(金氏)는 [illegible] 즉사하얏다고한다

假刑事

가짜형사가진짜형사에게붓잡힌이야기═원적을 대판부북하내군(大阪府北河內郡)에두고 조선에건너와방랑하는 중촌자지조(中村子之助)란 뻔뻔한 사나히는 돈에궁하다못해 일게를꾀하야 이십삼일오전세시경부터 경성역구내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형사(刑事)의 위신으로 함부로 몸수색을 하엿스나 이십여명만에 겨우 일원삼십전을 버럿슬때에 순회하든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엿다고한다

賃金低廉으로 怠業者가續出

仁川御多福工場에서

【仁川】인천 오다후쿠(おたふく)제면(製綿)공장은 작년건축이래 비약적발전을보이고잇서 현재매일평균 일천관이상을 산출하야 조흔성적을보이며 남녀직공삼백명을 채용하고잇는데 전긔원료를 남양(南洋)남미(南米)지방에서 직수입하는관계로 열대지방의독특한 가진병균들이포함되면이라 직공간에는 가간히 일홈모를병을 일으키고 잇슬뿐아니라 그중에도 임금조차 십이시간로동에 최저이십전이라는 말할수업는 임금이라 이에대한 불평이 직공간에 성행하고잇든바 근자에일으러서는 직공의결근이속출하야 지난십구일에는삼십륙명의 결근을보이고 잇슬뿐아니라 직공간에는 근일임금관계로 태업을시작하야 점점확대되는모양인데 추이가 가장주목된다한다

高價의開城電燈 料金引下를促進

府民代表가會社當局에陳情

【開城】일반개성부민의 요망에 적이되여잇는 전등료금인하문제는 전번 개성기자구락부(開城記者俱樂部)주최로 부민대회를 개최하야가지고 중론(衆論)을 이르킨후부터 더욱 기세는 비등하야 나중엔 림한선(林漢璿)씨외십여명의 실행위원을 결정하게까지되고 이들은부민대표로서 지난이십일밤차로 현재개성전기회사와합동한 서선전기회사(西鮮電氣會社)책임자를 방문하려 평양에 급행하게되엿섯다 그리하야 동회사길전전무(吉田專務)를 차저본후 부민대회결의문을 제출하고 위원대표로 전긔림씨가 적어도현재료금(칠십삼전)보다 상당은 인하하야 달라는의 [illegible] 관철할 욕망에 장시간동안 개성전기료금의 고가의 무리한점을 들어 비난하고 토의를 거듭한결과 금후료금 감하문제는 어느정도까지 최선을다해 일반부민의비난이 업도록 감하하겟다는 확답을듯고 지난이십일일무사히도라왓다한다 이에 길전전무는 줌 냉정한 태도로 『료금감하문제는 물론 회사측으로서도 생각하고 잇기는하나 얼마를 감하하겟다고 언명하긴 좀어렵다』라고 모호히 대답을 하엿스며 이에 [illegible]

對佛籠球戰 代表팀連勝

【巴里二十二日發同盟】二十一日 倫敦으로부터 巴里에 到着한 籠球代表팀對 佛國레ー징그타 俱樂部戰은 二十二日午後三時부터 俱樂部코ー트에서 觀衆約二千名이 雲集한가운데 擧行한바 六十八對十七로 籠球代表軍이大勝하엿다 그리고 同午後四時부터 佛國올림픽代表팀과 對戰한바 四十三對二十四로 連勝하엿다 日本팀一行은 二十三日에는 巴里市內見物、二十四日에는 『제네바』 向發하리이다

日本四三(二一…一三)(二二…一一)二四佛國

朝滿陸上

朝鮮對滿洲陸上對抗競技大會는二十三日午後一時二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열린바 이날夕刊막음까지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八百米】1瀨口(滿)二分○秒六 2朝倉(朝)二分一秒三(以上同大會新記錄) 3山本(滿) 4三好(朝) ▲得點滿洲六點 朝鮮四點

【百米】1福田(朝)一一秒二 2菊地(滿)一一秒三 3對馬(滿) 4田中(滿) ▲得點 滿洲六點 朝鮮四點

【高障碍】1米澤(滿)一五秒五 2李章完(朝)一六秒一 3加藤(滿) 4山本(朝) ▲得點滿洲六點 朝鮮四點

硬式卓球指導

高麗卓球聯盟에서는 來二十六、七兩日間 午後二時부터 鐵路靑年會館卓球場에서 國際硬式卓球競技를 朝鮮에도 普及시키기 爲하야 今般 全日本國際硬式卓球選手權保持者이며 全日本國際硬式卓球協會理事인 許源明氏를 招聘하야 實技와 理論을 指導하기로되엿바 一般의來覽을 歡迎한다고한다

全日本女子 卓球招聘戰

京城팀不振

朝鮮卓球協會와 朝新共同主催의 全日本女子卓球團 招聘戰第二日은 二十三日 午前十時四十五分부터 府民館中講堂에서 第一次戰인 全京城女子高商對戰으로부터열린바 當日夕刊막음까지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全日本軍】 勝 【全女高普】

保原 3…0 金春姬(女高)
(京都高女出)
西山 3…1 許元順(同德)
(京都女子高專)
勝山 3…0 卞先愛(女商)
(和歌山高女出)
眞田 3…0 尹明鎭(女商)
(現高女研究科)
戶邊 3…1 李孝根(同德)
(東京共立女專)

【全日本軍】 【全京城軍】

○保原 3…0 許元順×
○西山 3…0 卞先愛×
○勝山 3…0 任昌淳×
○眞田 3…0 李孝根×
○戶邊 3…2 金春姬×

【全日本軍】 【全女高普】

保原 3…0 [illegible]
西山 3…1 [illegible](同德)
勝山 3…[illegible] [illegible](同德)
眞田 [illegible] [illegible](女高)
戶邊 [illegible] [illegible]

淋疾

合併症治療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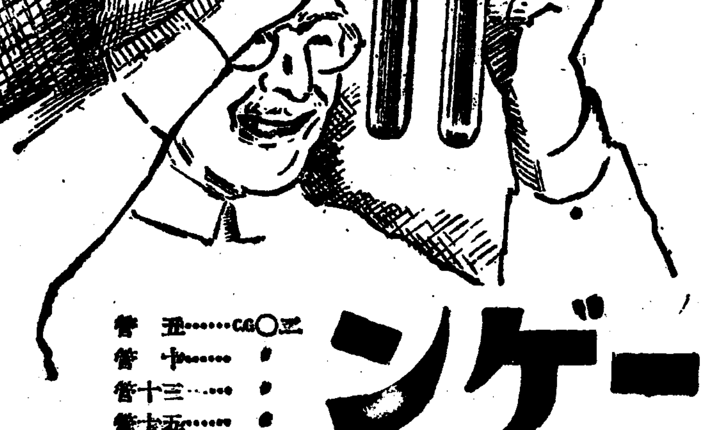
迅速히排膿을中止식히고 混尿를淸澄히疼痛을鎭定함

本劑는淋疾의治療上가장信賴할수잇는 약구진을 特殊의處理에依하야 殺菌等의 副作用을除去하고그効成分인 普通劑의數倍를一回에쓸수잇게 硏究하고 이에化學的治療劑인 칼시움及우로사민等鎭痛、消炎、殺菌力잇는藥劑를配合하야 完成한것입니다 따라서

急性淋疾에는 처음부터 慢性淋疾特히 治療困難한 攝護腺炎、丸炎等에는特히 有効하야 治療界에 賞用되여잇습니다。 또婦人科領域에 잇서서 手術外에治療法이업다는 喇叭管炎、子宮內膜炎에도 奏効합니다。

本劑의 注射는 隔日로이를施行하야 慢性淋毒性疾患을治癒한 多數의治驗例가잇다。

注射 ネオカルゴノーゲン 네오카루고노ー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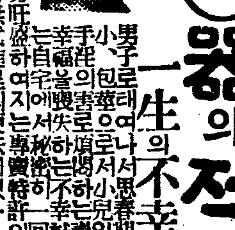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No.64

生○器의적은분은

一生의不幸



[illegible] 特許 最新强大法 眞空療法硏究所

◇校舍大擴張◇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

第四七回 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晝夜新學期開始九月十日◇ 學則呈(郵券三錢) 京城府黃金町六丁目 三二三番地 (電本五二三〇番)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新學期開始九月十日(晝夜)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學校入學 [illegible]

면눈이 뜨고나니 어수선한 이세상

도로감고서야 집을차저

김승현

오랜예전에도 한번 서화담(徐花潭)이란 어른의 이야기를 하얏지만은 그어른의 이야기로 재미나것이 적지 안타. 이 것도 그어른의 이야기인데 재미나다는 것보담은 오히려 만히 생각하야 볼거리 짤막한 이야기다.

어느날 하로 무엇을하러갓든지 그어른이 길ㅅ거리를 나갓든때에 한 골목을 지나자니 열두서너살된 아히가 두눈을 커다라케 뜨고 베뜨버리고 안저서 울거늘

「너왜 우니」

서화담이 무르니

「어려서 눈이 멀어서 날마다 길을 집고 다니엇는데 오늘 아츰에 나와 길로을아다니다가 우연히 눈이 떠젓답니다」

그 아이는 엉엉이에 눈하락데기를 가로치면서 또 엉엉을 지를 안켓니?

「면눈이 뜨면 조켓지 울것이 무어냐」

서화담이 다시 물으니

「눈을 감고 막대로 지퍼서는 우리집을 잘 차저 다니엇는데 눈이 뜨이고 나니 이집도 저집갓고 이골목도 저골목 가타서 우리집을 차저 갈길이 망연합니다」

그 아이는 여기저기를 헌감아 바라보면서 어쩔하지 안켓니?

「파연 그러켓다 내가 네롤 너의 집으로 잘 가도록 봐주마」

그어른은 고개를 멧번 끄덕이고 나서니

「그러면 눈을 감아라」

그아이는 시키는대로 하얏다

「이제는 막대를 지퍼가며 처럼 너의집을 차저 가거라」

그아이는 그대로 해서 과연 제의집을 잘 차저 갓답다.

이야기를 듯고 나서 너의들은 무슨 생각이 나느냐? 그 생각나는 것을 좀 이야기 해 보렴으나

가을밤 풀바테서 반짝이는반딧불

리성득

가을ㅅ밤에는 반듸ㅅ불이 한경치다. 여긔서 한마리가 반짝 저긔서 한 마리가 반짝 서로 비치며 반짝어리는 것도 운치잇거니와 떼를 지어 멧 십마리 멧 백마리가 겹하이는 것도 장관을 이루기에 넉넉한 일이다. 그런데반듸ㅅ불이 어떠한것을 너의들이 잘 아느냐? 오늘은 거긔 대한 이야기를 하야 들리마. 반듸라면 나브는 버레만옴가르치는 말이지만은 그 것이알로 잇슬때나 유충(幼虫)으로잇슬때는 구데기로 잇슬때나언제나 불을 가지고잇는 것이다. 그와가리 반듸란 버레는 일생동안 불을달고 지내는데 그중에서도 가장빗나는놈은 역시 나를 때라다. 그불은 반듸의 신체내부쪽 세포(細胞)에서나는것이다. 고 세포를 발광세포라고 한단다. 그런데 발광세포는 한개 한개 떨어저잇는 것이 아니라 한데 뭉치어잇다. 그리고 한 마리의반뎨에는 여러 뭉치의 발광세포가 잇는까닭에 세포중에서 빗나는곳이 무수하게 잇단다 그것도 암놈과 숫놈이 다르다. 암놈은 한일자로 죽 빗이 나는데 숫놈은 동근점을 쪽쪽 밝은듯이 빗난다. 하여 큰 반듸불에도 산소(酸素)만은 필요하니까 거긔딸아 긔관(氣管)의분포(分布)도 퍽발달되야 잇는것이다. 또 그불을 조금도 랑비하지 안코 꼼개시리 비치어 내보내고자 발광세포조직뒤에는 반사세포조직(反射細胞組織)이라고 교묘한 조직까지 가추어 잇는 것이다.

우로 외쪽은 숫컷의 배와발광기 가온데는 암컷의발광기 오른쪽은 암컷의유충 아래로 외쪽은 숫컷의번데기 오른쪽은 알

그것은 그러커니와 반듸ㅅ불에는 열이 업지 안호냐? 불치고 어떠케 열이 업슬수잇나? 이것이 근대화학자의 연구ㅅ거리다. 우리인류로서 이런불을 맨들기에 성공한다면 여러가지로 유의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바다ㅅ반듸라고 바다ㅅ속에도 반듸 가튼 종류의 동물이 잇는데 그불은 세포로 부터 분필(分泌)되야 나오는 두가지의 물질이 서로 혼합될때 생긴다는 것을 알아내엇다. 반듸도 결국 바다ㅅ반듸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화학작용에 의지하야 불을 맨드는것이 아닌가고추측을 하고엿다. 반듸이외에 생물을 발하는놈건이잇다. 원선 균(菌)이 습긔를 만나서 산화(酸化)될때는 푸른불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반듸ㅅ불도 아조 그럼 불빛과 근사하고나. 그때서 때전에는 반듸가 진(燐)가지고잇서서 그것이 산화되는 바람에 빗난다고들생각하얏거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동안에 퍽들 건강해젓군요. 씩씩한 얼골 명랑한긔분으로 새학긔를 맛게되니 얼마나 기쁨니까.

자 이제부터는 더위도 다가고 선들선들한일긔가 사람의정신까지 상쾌하게합니다. 녯날사람들도 가을철은 공부하는철이라 하얏거니와, 밤도 차차 길어갈것임으로 공부하기에는 가장조흔때입니다.

그뿐아니라 학교공부에도 제이학긔가 가장 공부하기가 조흘때입니다. 더욱히 명년봄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등학교로올나갈사람은 지금부터 착실히 공부하지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공부만 작구하라는것가러서 미안하나 공부라하는것은 할때에하지아니하면 나종에는 하고자하여도 기회가 오지아니합니다.

童詩 새끼 고래와 바보 고기

바보고기는 새끼고래더러 말하엿습니다.
「달랑은 진주령창에나 쑤서배키지,
이 미꾸리새기야!
왜, 쏘단이는게야, 아모짝에 못쓸놈,
어서 꺼구랑으로 도라가거라.」
그래두 새기고래는 아못소리도못하고 도라갓습니다.
제가 얼뜨기이 되리라것도,
바보고기가 멍텅구리라는 것도,
아죽, 새끼고래는 몰랏습니다.

―Vachel Lindsay―의詩에서

吳章煥 譯

기차와경주하는 개와말의거름

「치ㅡ타」는더빠르지요

동물중에 무엇이제일거름거리가 빠르겟습니까? 거북과가티 느릿느릿한것도 잇고 룩기가티 빠른것도잇습니다. 「구레이파운드」라고하고 경주하는개는 서백야ㅡ드를이십삼초에 휙휙다라난답니다 그리고말은 백미돌경주를하는데 륙초이가 걸린다하니 사람의 갑절 빠른 세움입니다. 여러분 경성서 부산사이에 룽래하는 기차중에 제일빨리 다러나는 기차일홈을 무어이라고 합되가? 「아까쓰끼」라고하는 최대급행차가 잇는데 그기차가 죽을힘을 다내여다름질치면 서울서부산까지를 여섯시간동안에 갈수잇답니다 기차와 개와말이모다 속력이 비슷 비슷한데 말과개도서울서부산까지를 정심먹고 오후세시쯤 남대문정거장을 떠나면 저녁먹고 조곰지난아홉시쯤해서 부산에 이를수잇습니다 그보다도 「치ㅡ타」라하는 고양이는 작년십일월달에 영국서 두마리가경주를했는데 백미돌을 사초삼동안에 다러낫다하니 제비보담은 조곰못하나 상당히 빨리갑니다.

그리고 이리가튼짐승은얼마를 거러가 피곤해지는법이 업답니다 「리차돈」이라는 사람이 「가나다」라는곳에 려행을하얏는데 길거리에서 이리한마리를 맛낫답니다 이 이리는 남지 입골달바게안되는 적데이이리엿스나 어떠케따러오는지? 구백마일을 그냥 천연스럽게따러오드랍니다 굼벵이는하로종일가도 여긔서 저긔까지 한발사이를 갈지말지한데 「치ㅡ타」라는 고양이나제비가튼것은 눈깜박하는동안 휙휙다러나니 가튼동물중에도 올림픽경주를하면십이되지안흘것입니다

알어마처 보십시오

바닷물에 버서낫지 갓기도 하지요? 나무마처에 물들엇지요?

구름 갓하 놉갓 갓기도 하니다 그러나 물을 이루 가지가 다아니니다. 그러면 무엇일가요? 여러분 놀나지마시요 이것이 어떠분이 귀엽다고하는

고양이의 혀ㅅ바닥입니다. 들을 어떠케 큰 고양이혀ㅅ바닥이 어듸잇겟습니까마는 현미경으로 느려서 사진을 박으면 이러케도 정그러케 보이는것입니다.

童話 깨지 벙어리

崔秉和

숙희(淑姬)의 벙어리. 새빨가케 잘익은 사과와가튼 모양으로만든 숙희의 벙어리― 숙희는 이 벙어리를 사다준 아주머니만 만저보고 흔들어 보게하고 그외의사람은 아모나 함부로 손을대이지 못하게하엿습니다.

숙희가 학교에갈때에는 그벙어리를 어머니 장속에다가 남이보지못하는 동안에 기피 감추어두고 학교에를 갓습니다. 그러케 해노치안흐면 숙희는마음을 놓을수가 업섯습니다.

숙희가 벙어리를 처음 학생아주머니가 사다줄때부터 이러케 숨겨두는 버릇을 가진것은 아니엿습니다. 거기에는 까닭이 잇섯습니다.

숙희는 한푼두푼 어룬들께서 주신돈을 벙어리에 집어넛코그 벙어리를 조고마한 자기책상에 올려놋는것을 한자랑으로 또는 책상을 보기조케 꾸미는것으로 생각하고 퍽 즐거워하엿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몰래 심술꾸진 숙희옵바 명수(明秀)가 이리 저리 흔들어서 오전짜리 한푼을 끄내갓습니다. 나중에야돈 일허버린것을안 숙희는 울고불고 야단을처서 아버지에게 오전을바더내서 집어넛코야 우름이 끗첫다 명수는 아버지에게 「남의물건을 훔첫다」고아버지에게종아리를 어더맛고는 「이제는 다시 안그러겟습니다」하고 다짐을 하게되엿습니다

이러한 일이 잇슨뒤부터는숙희는 집안사람을 미듬수가 업서서 벙어리를 감추어두는 버릇이 생기게 되엿습니다.

◇

숙희는 벙어리에 돈 넛는데 자미를붓처서 원ㅡ여름「어룸과자」한개 제돈으로 안사먹고지내습니다 학교에단여와서는 저녁밥먹기전에 아버지아페서 창가도하고 유희도하엿습니다 그러

◇

어느날 어머니께서 장속에서 무엇을 차즈시다가 숙희가 감추고간 벙어리가 손에 만져젓습니다. 「돈이 얼마나모엿나」하시고벙어리를 끄내보시엿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벙어리를 보시고 깜짝놀라시엿습니다. 벙어리는밋구녕이 뚜러지고 돈은한푼도드러잇지안혓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또 명수가 이런짓을 하지안혓나」하고잇다가 학교서 도라오면 눈치를보리라하고 벙어리를도로 장속에 너어두시엿습니다.

명수와 숙희가 학교에서 도라오자 어머니께서 두아이의눈치를 보앗스나 별로의심나는곳이 업섯습니다. 그래어머니께서는 학생아주머니하고 의론을하시엿습니다. 그래 학생아주머니가돈 일원을 숙희에게 주시면서 벙어리에 다가 너코 하시엿습니다.

◇

다른때가트면 벙어리를 꺼내가지고 집어넛든때 오늘은 장속에서 그대로 집어넛는것이어머니와 아주머니께 수상스럽게 보엿습니다. 그리고 자세한것을 무러보리라 할때 일가집 할머니가 오시여서 못무러보앗습니다.

그날저녁때 회사에서 도라오신아버지는 양복도버스시지안코 어머니께

『여보! 이신문좀보!』하고 얼굴에기쁜 우슴을우스면서, 조선일보를 내노시엿습니다. 어머니와 아주머니는 『무어길가』하고 급히 신문을 펼처보앗습니다.

오늘신문도 역시 남쪽서풍으장마비로해서 집이떠나가고 사람이빠저죽은 이야기자 웬통차지하엿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수가

『여기 숙희사진이잇수』하고 떠들므로 그가르키는 곳을 보니 간 아닌게 아니라 떠는 단발머리에 학교복을입은 귀엽게 생긴 숙희의사진이 똑똑히박혓습니다. 신문을보니 숙희가 벙어리에 모와둔 『팔십오전』을 수해당한곳 어린동무들에게 보내달라고 신문사로 가지고 와서 기특한 소녀라고 총찬을 하엿습니다.

학교아주머니는 너무나감격해서 숙희를푹껴안고 그볼그스레한빰에 입을맛추엇습니다.

그이튿날 숙희의책상에는 누가 사다노왓는지 새벙어리가 학교에서도라올 주인을기다리고 잇섯습니다. 이동화를 전주 리영숙 리춘배남매에게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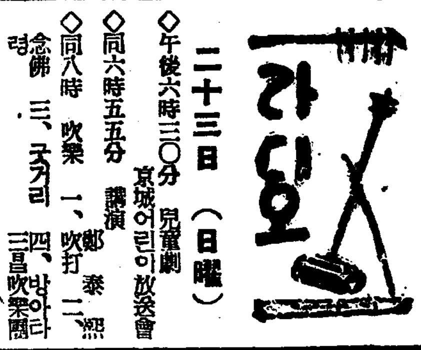
―(六月二十一日作)―

눈수대중(三)

죽으니이상하지요

올흔쪽 원쪽의 두그림에는 한복판 똑바로 조금도 비뚤지 안케 평행선(平行線)을 그어노핫는데 시로 비스듬이 빠친는 선으로 인하야 하나는 가운되 볼룩하고 하나는 가운지 홀쭉하야 보이는답니다

라듸오



二十三日(日曜)

◇午後六時三〇分 兒童劇 京城어린이放送會
◇同六時五五分 講演 鄭泰熙
◇同八時 吹樂 一、吹打 二、念佛 三、굿거리 四、방아타령 三昌吹樂團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三、短歌 楚漢歌 草廬 李東伯 鼓手 韓成俊
◇同九時 古談「燕尾服先生」 張泰浩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 歌曲 一、羽樂 二、界面 三、太平歌 河圭一 金(?) 紅 玄琴 金(?) 洋琴 金(?) 大琴 金永根 伴奏 金(?)

第一放送

◇午後七時三〇分(東) 講演 拓務大臣 永田秀次郎
◇同七時四〇分(札) 講演 樺太廳長官 今村武志
◇同七時五五分(札) 一、(?)의(?)

二十四日(月曜)

◇午後〇時五分 俗謠 一、山念佛 二、산아위(洋琴獨奏) 三、靑春歌 四、念佛도도리(短簫獨奏) 五、굿거리 六、메나리(細笛獨奏) 七、방아타령 八、唐樂 洋琴 池龍九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六時三〇分 管絃樂 DK管絃團
◇同七時 經濟解說 朝鮮日報 徐椿
◇同八時 常識講座 朝鮮敎育의 特異性 總督府視學官 張膺震
◇同八時三〇分 自作詩朗吟 一、鄕愁 二、조악돌 三、海峽 鄭芝鎔 四、靑노새 五、바람은南風 六、松花江배ㅅ노래 金巴人 七、新作路 八、해마다제철되면 九、살구ㅆ 金岸曙
◇同八時五〇分 唱劇調沈淸傳中「沈奉事皇城올라가는데」 丁元燮 裵太弘 吳太石 金世俊 趙素玉 朴玉葉
◇同九時三〇分 古談「빈대」 車靑吾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英語會話講座 H·W·존스 O·K·빠커
◇同十時三〇分(東) 어머니時間
◇午後零時五分 端唄 李貞淑
◇同六時(東) 이야기
◇同六時二五分(東) 趣味講座
◇同七時三〇分 (?)
◇同八時(東) 歌劇
◇同八時三五分(東) 新內 富士松(?)太夫
◇同九時(東) 浪花節 吉田伯(?)

二十五日(火曜)

◇午後零時五分 俗謠 一、(?) 二、(?) 三、(?) 崔素玉 洪小月
◇同六時三〇分 童話「자룡이와호랑이」 金泰午
◇同七時 經濟解說 金馬鉉
◇同八時 講演 "朝鮮特産物巡禮"(五) "工藝物"(一) 總督府商工課 鄭在性
◇同八時三〇分 童謠歌外 一、유람가 二、경남님 三、사설방아 四、골드랭타령 五、처녀가 閔亨植 宋亨來
◇同八時五五分 라듸오드라마「동생의就職」一場 英玉(빠의마담)…白洪鎭 允植(그의동생)…宋在善 鍾洙(英玉의아들)…朴晟民 아버지…申左鎭 正子(酒女給)…崔貞淑 (?)…李春峰 同人會
◇同九時三五分 歌謠 一、(?) 二、乾坤歌 (?)紅 李弄月 大琴 金永根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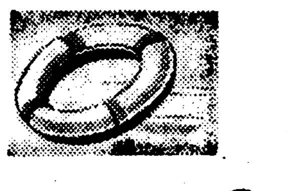
◇午前六時三〇分 遞信局(?)講座
◇同一〇時三〇分(東) 어머니時間
◇午後零時〇五分 (大) (?)
◇同六時 (?) 南(?)夫
◇同六時二五分(松) (?)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大島正德
◇同八時 (?) 기타伴奏 (?)
◇同八時二五分 詩吟 (?)
◇同八時三五分(東) 淸元 淸元梅壽太夫
◇同九時 (東)浪花節講談 神田伯龍

曆

八月廿四日(月) 陰丙申七月大(初八日) 戊寅·土·心·破
●陰暦二十三日(陰初七日)
●白露九月八日(陰廿三日)

愛慾의彼岸

【83】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어떤날 아침 혜련은 원산온후에 늘하는습관대로 새벽산보를 나왓다. 전에는 혼흘어깨와 서라도 문임도 다리고 나왓지마는 문임도 아버지에게 마음을 허락한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부터는 혜련은 아모조록 혼자 나왓다. 문임이가 따라나서면 마다고는 아니하더라도 혜련이편에서 문임을 재촉하는일은 업섯다. 그것은 다만 아버지와 문임에게 조용한 긔회를 주랴는것뿐이아니엇다―사실은 일에는 집장군와 문임은 가끔 혜련을 피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잇는 모양이엇다―그보다도 문임이가 혜련에게서 천리나 만리나 멀어간것 갓고 아모리하여도 다시는 옛날의 가까움을 회복할수업는것 가티생각해서 가티 다니거나 이야기를 할 흥미조차 일허버린때문이엇다.

그래서 이날 새벽에도 세게가 다섯시를 치는소리를 듯고는 성경과 찬미를들고 아모조록 소리 아니나게 살그머니집에서 빠저나왓다. 스므날 지난 반달보다는 좀 큰달이 필푸마당수풀우에 걸려잇섯다. 여름날로는 희한하게 맑아서 가을날이드한 느낌을 주는 하늘과 공긔엿다.

혜련은 가슴ㅅ속에 형언할수 업는 일종의 적막을 느끼면서 칙칙한 솔밧속 해안으로 좋하는길을 걸엇다. 때때로 어젯밤 소내기의 남은 방울이 혜련의 어깨를 따렷다. 학생들의 벤트도 아직 잠잠하엿다. 혜련의 발ㅅ자욱소리만이 짜작짜작하고 혜련의 귀에 울렷다.

송림을 나서면 그래도 환하엿다. 그것은 아직 아침ㅅ빗은 아니오 바다빗이엇다. 갈마의산머리에 아직 붉은 빗치 나지도 아니하엿는데 바다만이 밤새도록 부르던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잇섯다.

혜련은 물ㅅ결이 찰삭거리는 바로 물ㅅ가에 섯다. 바람 한점 업고 바다는 대패로 민듯하엿다. 고래도 물ㅅ가에는 찰삭찰삭 소리를 내이면한 물ㅅ결이 잇섯다.

혜련은 그 물ㅅ결소리의 뜻이나 알아들으라는드시 가만히 눈들을 감고 고개를 숙엿다. 그리고 아침 긔도를 올렷다. 긔도는 거의 습관적이어서 별로 마음을 자극함이 업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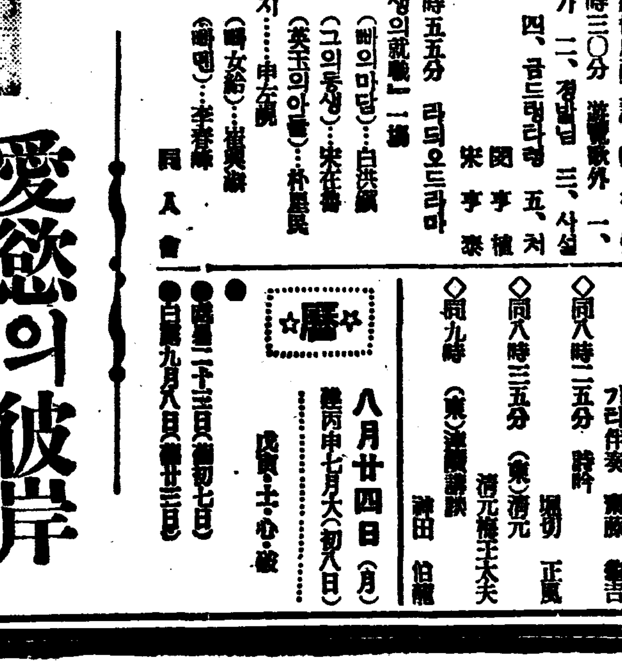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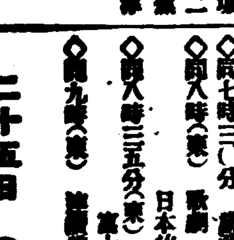
「무어인지 모르나 알고싶흔 마음, 물ㅅ결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마음, 『공구이지 몰라몰 기달리는 생각, 모요새 소리에도 놀라지는 생각.

혜련은 길게 한숨을 쉬엿다. 혜련은, 물ㅅ가에 노힌 바위 뿌드에 몸을 기대고 술술 부는듯 마는듯한 바람에 머리카락과 치맛자락을 펄펄 거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압헤 잇스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큰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야 항상 빗츨 보도다」를 불럿다.

아페 보이는 바다가 하늘가는 밝은 길 갓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만히보는 것이 혜련 자신 갓기도 하엿다. 이제 저 동편 하늘에서 해가 붉은 솟으면 혜련의 마음의 어둔 그늘을 헤처줄것갓기도 하엿다. 그때도 저 잔잔한 바다에도 남실남실하는 결이 잇는 모양으로 혜련의 마음에는 회평이업섯다. 알수업는 불안과 흔들림이 잇섯다. 가슴을 누르는 무거움이 잇섯다.

「When Other Lips」 When other (?) 뻐욱 흐려지게」 한 구절을 불러보앗다. 혜련은 그 눈과 가라 흰 마음에 검은 뒤끝이 안는것이 섯엇다. 혜련은 제 흥울분보다 떠 희게 매 깨끗하게 가지고 가고십다는뜨거운 원이 잇섯다. 「힘잇을 업은 전사」 이러한것에 대한 동경이 잇섯다.

色味의五種
濃肌色 新肌色 自然色 白色 カカオ色

活性特殊白味劑
完全不透明白味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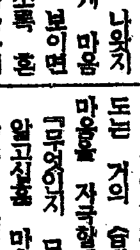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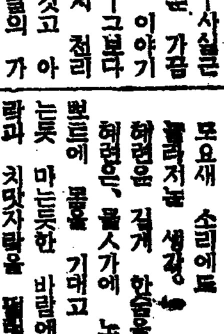
기름끼는업고
淸新味

困難한 皮膚異變!

女性을가장困難케하는 皮膚現象…… 그것은 夏季에 만흔 過剩皮脂……이過剩皮脂를 그대로 放任해두면……

◀먼저化粧이 고루퍼가지안어서 淸新味가업서진다……

◀第二는 (?)히 回復지안코 原質이고 部分的인벗께짐을이르키게된다.

マスター:粉白粉 (마스타)

自動車業統制强化 群小業者逐年沒落

全南道內의數個財閥會社의 投資總額近二百萬圓

【光州】전조선을통하야 자동차업의 통제계획하에 수년이래지방을따라 부분적으로 그실시를 보고잇는바 전남에잇서서도 대재벌의 진출이 극강도로 전개됨을따라 도내자동차업은 점차통제화하고잇서 군소업자는 딸할것도업시 류변몰락상태에잇다 그회사명을봇건대 남조선철도(南朝鮮鐵道)소속자동차업자본금 일백만원을 필두로 영산포(榮山浦)에 본점을둔 전남자동차주식회사자본금 십오만원해남(海南)대흥자동차주식회사자본금 이십만원·강진(康津)전남운송주식회사자본금이십오만원 벌교(筏橋)반도추렴회사자본금십만원 광주(光州)전남화물자동차주식회사자본금 이십만원등 통제하에잇는 회사의 총자본금은 일백구십이만원에 달하고잇다한다

後任面長問題로 降峴面民對立

【大浦】강원도양양군강현면(降峴面)에서는 현면장 장세환(張世煥)씨의사임으로인하야 후임면장을 인선하게되엿는데 세칭 군대국으로서의 내선(內選)하엿다는 김모의 문제로써면부에서는 부적임이라 대치되야 일부에서는 적임이라고 호소― 각자의견해를 지적하야 각요로당국에 진정을하는등 일대 파란을일으키고잇다는데 이제 그자세한내막을들으면 전기한 장면장은 본면재직 십여년동안을 한결가티 면행정에 전심노력하여오던바 금번사임은 과연 의외로 면내유지(有志)는 그의사임을 애석히여겨 면협의원 구장들의 대부분과 기타유력자 수십명의 연서로 류임(留任)을 진정하는동시 전기 김모의 후임은 근본적으로 배격한다하며 일부면민중에서는 괴왕 사업한 면장류임을 불원요로써 김씨의 후임을 적극적으로 추대한다는등 진정중이라는바 본면은 복잡다단한 현안이만허 면민의 협동적 단일보조를 요구하는중에 이런 불명예한 사태를 야기함은 일반식자간에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도당국의 재단이 주목된다고한다

道路賦役問題로 四百餘戶에差押

光陽郡津上面所의이處事 一般의非難聲高調

【光陽】전남광양군진상면(津上面)에서는 지난구일에 돌연히면직원을 총동원시켜 각기구역을분담하야 도로개수공사부역환산금(道路改修工事賦役換算金)미납자 사백호에대한 차압처분(差押處分)을 단행하엿슴으로 일반의 민원이 비등하다는데 이제그내용을듯건대 동면등외도로 섬거、어치선(蟾居、於峙線)개수공사에 대하야 변래면민의 일대숙제가 되여오든바 소화구년가을에 비로소 성안되바 공사비는 면민의 호세등급에 부과시켜 동년도말까지 출역고지서를 발부하고 소화십년일월부터 긔공착수하야 그해삼월중에 공사를일시중지하엿는데 부역인부 부과호수총일천이백호에 삼분의일가량이 미완역이부호수임으로 이에대하야 해면당국에서는 동년사월일일부로 부역환산금납부최고서를 발부하고 이여서 독촉장까지 발송하엿스나 지금까지 완납되지못하야 전긔도로개수공사를완료치못하고 그대로 중지되어교통상불편이 불소하다하야 그와가티 차압처분을 행한것이라는데 이에대하야 일반면민들은 농촌의 경제상태를 보아서 농민들의 생산수확고나 농한긔를리용하야 철저히 독려하엿다면아모지장업시 속히준공되엿슬터인데 그러한시긔는 등한시하엿다가 금년가티 지리한장마와 천후불순으로인하야 농작물의 피해가 막대하야 농민들은 도탄중에빠져 나날이 생도에 불안과 공포를늣기고잇는이때 이와가티 강제집행까지 단행하야민심을 소동케하는것은 면행정의 진의와 위정안목으로보아 매우가혹한 실태라하야 일반의원성이자자하다고한다。

學術講習所基金으로 宗財五千圓喜捨

龍林里李門의美擧

【立石】배움내야 배울곳이업서 허다한 학령아동이 거리에서헤매이고잇는 비참한 현상을보고 오천원이라는 거액을 던저학술강습소(學術講習所)를 세운아름다운소식―。

평남 안주군 립석면 룡림리(安州郡立石面龍林里)는수십여호의 의좋은리씨(義興李氏)일문이살고잇는데 수십년래 풍부히 저축해오든 종중재산(宗中資産)오천여원을 요사이와서 동리강습소설치기금으로 제공케 되엿다 특히빈한면에는 학비계 학한급의 보통학교가 한아잇슬뿐으로 배빈히 입학경쟁은 심하야 지원자의 삼분지를 못수용하는현상이며 또는거리가 학교는 한편에 치우처잇서서 전긔 룡림(龍林)외여덜동리는 전연 통학을할수 업는형편임으로 불편은 말할것도업서 최근에는 제이보통학교설립 촉진운동까지 대두하게되엿섯이다

전긔 룡림외 여덜동리에서수차나 학술강습소 설립운동을이르키엿스나 여의치 못하엿든바 이룡시씨가 늣긴 전긔리씨 일문이 분연 궐긔하여 종중재산 오천여원을 자진 희사하여 금번에 실현을 보게 된것인바 특히 경성회문고보(徽文高普)에서는 교사긔지로 천여평을 제공하여 목하 교사건축공사에 분망중인대 일반은 전긔 리씨일문의미거를 칭송하여 마지 안는바이며 면옥히 유지 리희범(李熙範) 리화순(李華淳)량씨의 노력이컷다한다

孫、南兩君制霸 祝賀旗行列

苗浦支局主催

【苗浦】백림올림픽대회에서 우리조선남아의 의기를 뽐내인 우리손、남兩군의우승과 연상불속하키위하야 묘포공보교와 소학교전구구락부후원하에 십칠일오전구시부터 축하행렬을 거행하야 시내를순회하며 만세를삼창한후 동오후한시삼십분에 묘포관에서 축하연을개최하야 본보지국장개회사와 래빈축사가잇단후 축연가를부르면서 동오후칠시에 산회하엿다

三一校에「싸이렌」 孫英仁氏가寄贈

【水原】현재수원읍내에 잇는초등정도의 학교로서 「라디오」와「싸이렌」의설치는거의다―완비되여잇스나 아직삼일학교(三一學校)에만그―설치를 보지 못하야 심히유감으로 지내든바이십일일 시내제일금융회주 손영인(第一會主孫英仁)씨가 이소식을 듯고 「싸이렌」대로금백원을과부하야직시 전국회사에 설치를신청햇다고하야 일반은 씨의특지를찬하다고한다

麟蹄에虎君出沒

【麟蹄】강원도린제(麟蹄)에는요사이 대낫에도 호랑이가 나와서 중행인이 놀낸다는이야기―린제군북면어은동(魚隱洞)에서는 요사이호랑이가 대낫에나타나서 용혜인을 괴롭게한다는데 목격한사람의말을들으면 그호랑이는 색기를 세머리나데리고잇슴으로 색기를해할가하야서 인과만나면 동시소리를지르고 덤비므로 행인들은 오륙인식모혀서 미리소리를처서 호랑이를 쫓치여운행한다고한다

普校生溺水慘死

【安東縣】안동소화(昭和)보통학교보고과일학년생도 안동현남이조통이번지(南二條通二番地)강중철(姜仲喆)의 아들 강춘석(姜俊錫)(一三)은 지난이십일일 오후한시경 자기아우와가티 무학홍사(無學弘司)아레나가서 놀다가 형이실수되여 물에빠짐에 그를본아우는 형을목구하겟다고 따러드러갓다가 형을못구하고 구사일생으로 겨우살아나왓다는데 형을목주한아우의 통곡하는 현상은 듯는사람에게까지 슬픈한감을준다고한다

三十名의密輸團 稅關監視所襲擊

稅關吏와亂鬪後押收品을奪還 曉頭安東縣江岸에서

【安東縣】지난이십일일오전한시경 안동현세관강안파출소(江岸派出所)부근에서 밀수군 삼십명이 밀수품을 상륙하다가 세관리에게 발각되여 난투하다가필경 사오점 압수당하엿는바 동네시경 전기밀수단들은 다시동강안파출소를 습격하여 때마침세관리두사람만 잇는사이에전기압수당하엿든 밀수품을 다시차자와다는데 그습격난투시에 세관사무기구와 유리창을 파손하엿고 세관리는 중상을 당하엿다고한다

强盜兩件 犯人踪跡皆杳然

【安岳溫泉】지난십사일 오전일시경 안악군은홍면 신창리김형설(安岳郡銀紅面新倉里金亨卨)집에 신장이오척칠촌가량의 조선의복을 입은청년이 침입하여 현금이천원을 내노이라고 위협하자 주인은 담배판돈칠원오십전을 내여주엇드니 그는바다가지고 유유히 떠나버렷다 이급보를 접한 오정주재소에서는 본서에보고하여 총원을더가지고 현장에급행하여 협안수사중이나 이러타할단서를 엇지못하고 범인의 종적은 오리무중이라한다

【江景】강경평야의 동북면인 채운면삼암리(彩雲面三岩里) 리광노(李光魯)의집에 지난집일 오전두시경 주인이자는방에 괴한수명이 들어와서『이러케잇는돈을내노흐라』고 공갈하야 현금이십여원을 강탈도주하엿다는바 이급보를 바든 강경서에서는 서원이 총출동하야 범인을 수사하는중이나 아즉단서도 잡지못한 모양인바 범인은 오리무중에 들어가고잇다한다

二萬五千餘圓工費로 淸流碧下道擴張

面目一新될東部交通

【平壤】평양부에서는 금번도에산에 이만오천여원의 공사비로 청류벽(淸流碧)아래 도로를 약상의미돌 노피는일방 현재의사돌폭을 륙미돌로 확장하기로되엿다

이도로가 개통되면 전금문(轉錦門)에서 홍부에가는 강안도로와 모란봉공원에 올나가는 도로가 난호이게되야 강안도로는 홍부를지나 주암산(酒岩山)부근에서 유람도로와 합치하게 되엿다

그런데 유람도로는 모란봉의 절정을 통과하는만큼 리용자가 적엇스나 이번의 청류벽도로의 확장과 여기에 련락하는 강안도로의 신설로 경정다리(平元橋)에서 청류벽으로지나 강안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귀분의 상쾌도 상쾌이지만 거리도유람도로로 모란봉 고대를 통과하는것보다 일천오백미돌이나 단축되는만큼 아프로의 리용자는 훨신만흘것이며 이도로가 준공되는때에는 산책도로보다도 산업도로(産業道路)로서의 역할도 미당하리라고 관측된다

第五回、關西男女 基靑修養會開幕

二十四日저녁부터

【平壤】「새마음을 밧자」라는 표어하에 모히는 제오회관서남녀긔독청년회수양회는 이십사일부터 삼십일일까지의 일주간 평양부내 신양리(新陽里)숭실전문학교본관과 대강당에서 숭전학생긔독교청년회와 긔독청년면려회평양로회련합회의 련합주최와 본사평양지국후원하에서 개최되엿다

참가회원 륙백명을 돌파하는대성황이며 전국저명의 인사들의 강연과 교수가잇슴은 물론특별집회로 활동사진、음악회、롱구、배구、탁구경긔도 잇고 시내관광등 풍부한 「프로그람」은 일반청년에게 만흔기회와 교훈을 바들그회이다

이제 순서와순서담당자를 위시하여 토의제목 강사 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講演演題及講師

敎育問題에對하야 崔允鎬
靑年과事業 崔成坤
保健問題 李容卨
農村問題 李慶善
基督靑年의使命 梁桂三
哲學과人生 朴致祐
靑少年期宗敎心發展過程과指導論 鄭一亨
敎會振興策 白永燁

▲每夜講演演士

牟義理 朱基徹 李容卨 白永燁
梁桂三 李允榮

▲特別集會

活動寫眞 音樂會 籠球試合
排球試合 卓球試合 市內觀光
其他

▲引導講師

新幹會 朱基徹
同 白永燁
聖經研究 南宮爀
靈感工夫 車在鎰

▲討議題目及講師

敎會와農村 李勳永
敎會紛糾와그對策 蔡弼近
近代思潮 同
討論 會員中

今年度의鰮群廻游 冷水帶로轉換

水産課調査로判明

【新昌】온유버로 제조 원료인정어리는 수십년래 처음보는흉어를 보게되여 당업자들을 비롯하야 어업관계가들은극히공황중에잇는바 수산과전문가들의연구조사에의하면 종래에는정어리회유(廻游)에 적당한 수온든집일도로부터 이십이삼도 까지이고 십일도이하는 소위랭수대라하야 어회이 업든바、금년은그와정반대의 현상으로 랭수대에서만히 잡혓다는 사실이 판명되여 종래의적온에는 일대의문점이 생겨당업자간에는 비상한센세이숀을 이르키고잇다한다.

今二十四日

午後八時半부터
「崇專本館及大講堂에서」

關西男女基督敎 靑年會修養會

◇主催 崇專學生Y·M·C·A·
平壤老會聯合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躍進朝鮮의世界第一位마라손王孫南兩君萬歲

森永ミルクキヤラメル

(밀크카라멜)

마라손의王國朝鮮의健兒!

孫基禎 南昇龍兩兄은 우리의無上의榮譽! 마라손을制霸햇슴니다 우리
들도滋養의菓子모리나가카라멜을먹고무럭무럭자라나 先輩의뒤를이어
오는날의오림픽에는 우리들의힘으로 이자랑 榮光을永遠히직힙시다

森永製菓株式會社